B32

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신장이식 환자에서 부신기능저하의 빈도와 임상상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

유혜영, 김영수, 양철우, 김용수, 김석영, 장윤식, 방병기

목 표: 신이식환자에서 스테로이드는 급성거부반응을 막기 위한 면역억제제로서 필수불가결하나, 스테로이드의 장기복용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며 그 중에서도 부신기능저하의 원인이 된다. 본 연자들은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신이식환자에서 부신기능저하 빈도와 이와 관련된 임상양상을 연구하였다.

방 법: 연구기간은 1999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만성이식신 기능저하중의 환자 30명에서 급속 ACTH 자극검사를 시행하였다. 각 환자에서 24시간이상 스테로이드투여 중지후 cosyntropin 0.25mg 근육주사하여 주사전과 주사 후 30분, 60분의 혈중 코티솔을 측정하였다.

결 과 :

1. 대상환자의 평균 이식추적기간은 119개월이었으며, 남녀비는 1.5:1이였다.
2. 급속 ACTH 자극검사에서 혈중 코티솔의 농도는 부신기능저하 환자군에서 주사전, 주사후 30분, 60분이 2.23, 4.74, 5.90mg/dl, 정상부신기능 환자군에서는 13.1, 18.54, 21.33mg/dl로 부신기능저하군에서 현저한 혈중 코티솔저하를 보였다.
3. 부신기능저하의 환자들에서 이식 후 6개월간의 스테로이드 투여용량(5963mg vs 4410mg)이 유의하게 많았다.
4. 스테로이드 총 투여기간(97개월 vs 135개월)과 급성 거부반응의 빈도(1.32 vs 0.75)는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5. 부신기능이 저하된 환자군에서 임상 증상을 동반한 경우는 45%,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55%였다.

결 론: 장기간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신이식환자에서 부신기능저하는 60%에서 발생하였고, 부신기능저하가 있는 환자의 임상상으로는 무증상의 경우가 55%였으며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비특이적인 양상을 보여, 스테로이드의 용량조절이나 중지를 결정할 때에는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부신기능저하의 가능성을 고려해 급속 ACTH 자극검사를 시행하여야한다.